

한국, 오늘 오후 4시 30분 우즈벡과 아시안컵 8강전

“조영철, 우즈벡 골문 열이라”



조영철



제로 톱 전술 ‘가짜 스트라이커’ 출전 유력

슈틸리케 감독 “볼 점유율 높여 공격 축구 하겠다”

조영철(카타르SC), 이근호(엘 자이시), 이정협(상주 상무) 가운데 누가 아시안컵 토너먼트에서 최전방에 나설 공격수로 낙점될까.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2일 오후 4시 30분(한국시간) 호주 멜버른의 레탕글러스 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2015 아시안컵 8강전을 치른다. 센터포워드로 나선 공격수가 누구냐에 따라 전반적인 전술 색깔이 바뀔 수 있어 관심이 많다.
 한국은 호주에 입성한 뒤 네 차례 A매치에서 공격수 세 명을 최전방에 번갈아 투입했다. 4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는 이근호, 10일 오만과의 A조 1차전에서는 조영철, 13일 쿠웨이트와의 2차전에서는 이근호, 17일 호주와의 3차전에서는 이정협이 호출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공격진의 활발하고 유기적인 자리이동을 강조하는 제로톱 전술을 밑바탕으로 삼으려 했다. 이에 따라 미드필더 같은 성격을 지니고 여러 공격 포지션을 활발하게 옮겨다니는 가짜 센터포워드로 조영철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측면 공격수만 활동하다가 슈틸리케호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거듭났다. 활동량이 많은 이근호도 센터포워드로 나설 선수로 낙점됐다. 이정협은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빠진 이동국(전북 현대), 김신욱(울산 현대)처럼 수비진에 깊숙이 들어가 버터플라이 스트라이커로 발탁됐다.
 이근호는 사우디아와의 평가전에서 볼을 자주 빼앗긴다는 이유로 후반에 조영철에게 최전방을 내줬다. 조영

철은 오만과의 1차전에서도 최전방을 누웠고 결승골까지 터뜨렸다. 이근호는 쿠웨이트와의 2차전에서 센터포워드로 선발 출전했으나 득점 기회를 자주 놓쳐 아쉬움을 자아냈다. 슈틸리케 감독은 호주와의 3차전에서 타깃형 스트라이커 이정협을 최전방에 선발로 세우는 카드를 던졌다. 볼 점유율을 낮추더라도 왼쪽의 이근호, 오른쪽의 한교원이 수비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게 하려는 선택이었다.
 이정협은 득점에 유리한 위치를 잘 찾아가는 본능을 앞세워 드문 기회를 결승골로 연결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서는 다시 볼 점유율을 높여 공격진들이 전방에서 많이 활동하는 스타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로톱 전술의 가짜 스트라이커 구실을 해온 조영철이 센터포워드로 주목된다.
 좌우 윙어 손흥민(레버쿠젠), 이근호, 공격형 미드필더 남태희(레키야)가 2선을 형성해 활발한 자리이동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맞춤형 전술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호주전과 같은 전술로 이정협이 부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 미드필더 듀오로는 기성용(스완지시티), 박주호(마인츠)의 출력이 유력하다. 안면 부상이 있는 박주호 자리는 한국영(카타르SC)이 메울 수 있다. 왼쪽 풀백은 김진수(호펜하임), 오른쪽 풀백은 차두리(FC서울)나 김정수(가시와 레이슬)가 맡는다. 센터백은 부상을 털어



슈틸리케 감독

낸 김주영(상하이 동아)이나 옐로카드가 한 장 있는 장현수(광저우 푸리) 대신 김영권(광저우 헝다), 곽태휘(알힐랄)가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골키퍼에는 남버원으로 떠오른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이 유력하다. /연합뉴스

2015 아시안컵 우즈베키스탄 예상 선발 라인업



한국 무실점 ‘늑축구’... 연승 기록도 ‘관심’

사우디와 평가전 포함 4경기... 우즈벡 이기면 19년만의 A매치 5연승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5 호주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보기 드문 무실점 전승을 거두자 기록 달성에도 눈이 가고 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오만, 쿠웨이트, 호주에 모두 1-0으로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지난 4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 2-0 승리를 포함하면 4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다.
 21일 대한축구협회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20년 가까이 이런 상승세를 경험한 적이 없다. 한국은 1996년 8월 괌(9-0), 대만, 베트남(이상 4-0)을 아시안컵 예선, 9월 중국(3-1), 11월 콜롬비아(4-1), 중국(3-2)을 친선경기에서 꺾어 6연승을 달린 적이 있다.
 슈틸리케호가 22일 멜버른에서 열리는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서 이기면 19년 만의 A매치 5연승을 기록한다. 한국은 2003년 12월 중국(1-0), 일본(0-0)과의 동아시아선수권대회, 2004년 2월 오만(5-0)과의 평가전, 3월 레바논(2-0), 몰디브(0-0)와의 월드컵 예선, 4월 파라과이(0-0)와의 평가전에서 6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적이 있다.

한국은 1990년 9월 호주와의 두 차례 친선경기(두 차례 1-0), 같은 달 싱가포르, 파키스탄(이상 7-0), 중국(2-0), 쿠웨이트(1-0)와의 아시안게임에서 6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둔 적이 있다. 슈틸리케호가 우즈베키스탄을 무실점으로 꺾으면 15년 만의 A매치 무실점 5연승을 달성하게 된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1975년에 11연승을 거둔 적이 있고 1970년에는 무실점 8연승을 달린 적이 있다. 강호들과의 대결이 잦아지고 아시아 국가들의 전력도 서서히 평준화되면서 연승이나 무실점이 어려워진 경향이 있다.
 슈틸리케호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조별예선을 사상 처음으로 무실점 전승으로 마치는 신기록을 세웠다.
 한국은 2007년 7월 인도네시아전을 시작으로 지난 17일 호주전까지 아시안컵에서 13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 동남아 4개국에서 열린 2007년 대회 4강에서 이라크, 카타르에서 열린 2011년 대회 4강에서 일본에 승부차기 끝에 졌지만 공식기록에서 승부차기는 무승부로 간주된다. /연합뉴스

기성용·차두리 ‘조별리그 베스트 11’

한국 축구 대표팀의 ‘패스 마스터’ 기성용(스완지시티)과 ‘베테랑’ 차두리(FC서울)가 2015 호주 아시안컵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조별리그 경기가 모두 끝난 다음 날인 21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별리그에서 각 포지션 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1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포지션은 ‘4-2-3-1’ 전열로 구성됐으며 중앙 미드필더 자리와 오른쪽 수비수 자리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친 선수로 기성용과 차두리가 뽑혔다.
 일본은 한국보다 많은 3명의 선수가 베스트 11에 뽑혔다.
 혼다 게이스케(AC밀라노)가 왼쪽 공격수, 나가토모 유토(인테르밀라노)가 왼쪽 수비수, 요시다 마야(사우샘프턴)가 중앙 수비수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개최국 호주와 아랍에미리트(UAE)는 두 자리씩을 가져갔다.
 호주는 골키퍼 매슈 라이언(브뤼헤)과 중앙 미드필더 마시모 루ongo(스완던 타운)가 선정됐다.



기성용

차두리

세련된 공격축구로 호평을 받는 UAE는 최전방 공격수 알리 마쿠티(알 아흘리)와 공격형 미드필더 오마르 압둘라흐만(알 아인)이 공격 1, 2선을 휩쓸었다.
 이밖에 중국의 쑤커(장쑤 세인트)가 오른쪽 공격수로, 이란의 모르테자 푸랄리간지(테헤란)가 중앙 수비수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광주 FC, 프리킥도 보강

측면 수비수 이요뜸 영입

매서운 프리킥을 보유한 이요뜸이 광주 FC에 합류했다.
 K리그 클래식 광주 FC가 지난 시즌 안양에서 측면수비수로 뛰었던 이요뜸(25)을 영입했다.
 대신고와 용인대를 거친 이요뜸은 2013년 신인선수선발 드래프트 2순위로 안양에 입단했으며, 지난 시즌 꾸준하고 성실한 플레이로 31경기를 소화하는 등 측면 수비수 핵으로 떠올랐다.
 ‘연습 귀신’으로 통할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

저한 이요뜸은 빠른 발을 바탕으로 한 경기용 운동능력이 뛰어나며 날카로운 프리킥 실력도 보유하고 있다. 또 왼발을 주무기로 한 강한 공격 성향과 순간 스피드로 역습에 특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요뜸은 “지난 시즌 광주의 경기는 항상 인상 깊었다. 광주의 유니폼을 입고 클래식 무대를 누빌 기회를 얻은 만큼 올해는 내 축구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다”며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울 점도 많다. 선배들과 함께 호흡하며 올 시즌 그라운드에서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